

글로벌 국가의 맥주소비동향¹⁾

이중혁 | 연구본부 대리



1. 개요

전 세계의 맥주 총소비량은 지난 2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글로벌 시장의 맥주 총소비량은 전년보다 1%가 증가한 1억 8,737만 킬로리터를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맥주소비가 높은 유럽이외에 태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맥주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맥주소비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태국은 2012년의 맥주 총 소비량이 전년대비 13.2%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맥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도 전년대비 소비량이 12.4%가 증가하여 새로운 맥주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2년에 전년대비 맥주소비량이 1.2%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대륙별 맥주소비 동향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맥주시장은 지난 20년 간 꾸준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2012년에는 전 세계 맥주소비의 33.2%를 차지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맥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맥주소비량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2.5%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꾸준히 맥주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2012년 맥주소비량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맥주소비량은 전 세계 맥주소비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최근까지 새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맥주시장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맥주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본 통계는 2014년 1월 일본의 기린맥주대학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맥주소비량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별 맥주소비동향

1) Big 5 맥주시장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독일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Big 5의 맥주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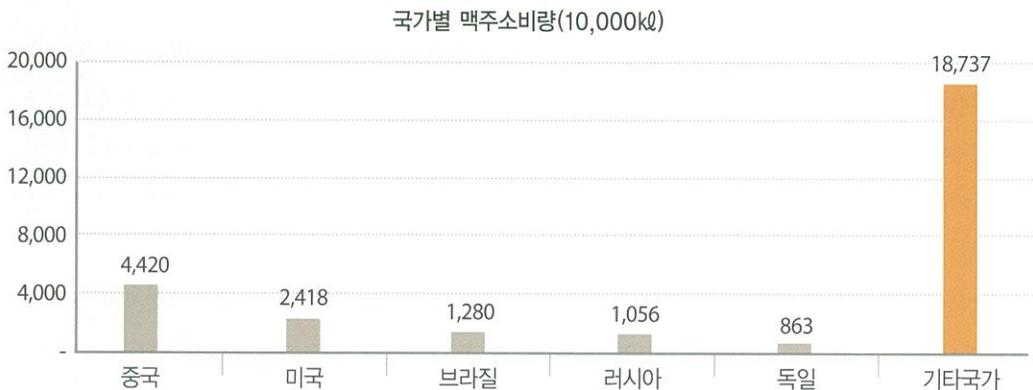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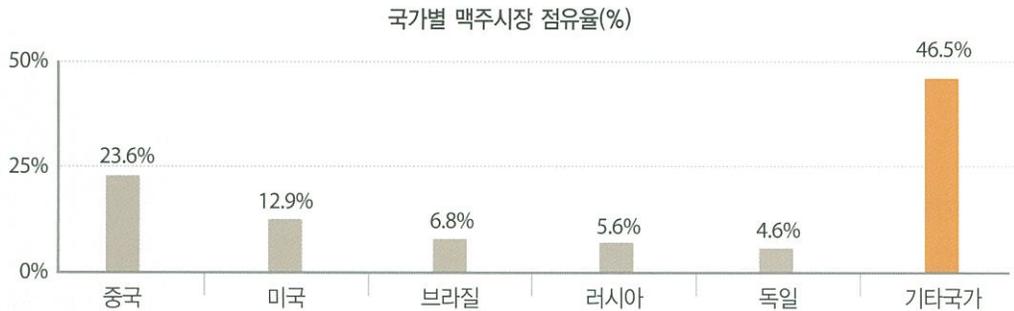
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자국내 맥주생산 증가에 힘입어 맥주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소비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맥주시장의 23.6%를 차지하고, 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71%를 차지하여 매우 큰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인의 맥주소비량은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12년 중국의 맥주소비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420만 킬로리터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맥주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맥주시장은 전 세계 맥주시장의 12.9%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미국인의 맥주소비량은 중국에서 소비된 규모의 절반수준인 2,418만 킬로리터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맥주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2년에는 전년대비 1.4%가 성장하였다. 중국의 맥주소비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총 소비량은 절반 수준이나 인구규모가 1/4인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맥주소비량은 중국보다 높았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맥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맥주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6.8%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에 브라질 국민이 소비한 맥주는 1,280만 킬로리터로 중국시장의 맥주소비량에 비해 1/3규모를 보이는 수준이나 전년대비 1.5%가 성장하여 매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의 맥주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맥주소비량은 1,056만 킬로리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년대비 5.6%가 성장하는 등 러시아의 맥주소비량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맥주로 유명한 독일은 러시아를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볼 때 독일의 맥주시장은 전 세계맥주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소비량은 863만 킬로리터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다.



2) 신흥맥주시장

전 세계 맥주시장에서 아시아지역 국가의 맥주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인도, 태국의 맥주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맥주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의 맥주시장은 전 세계 맥주시장의 1.6%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2년 맥주소비량은 전년대비 8.9%가 증가한 305만 킬로리터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맥주소비시장에서 11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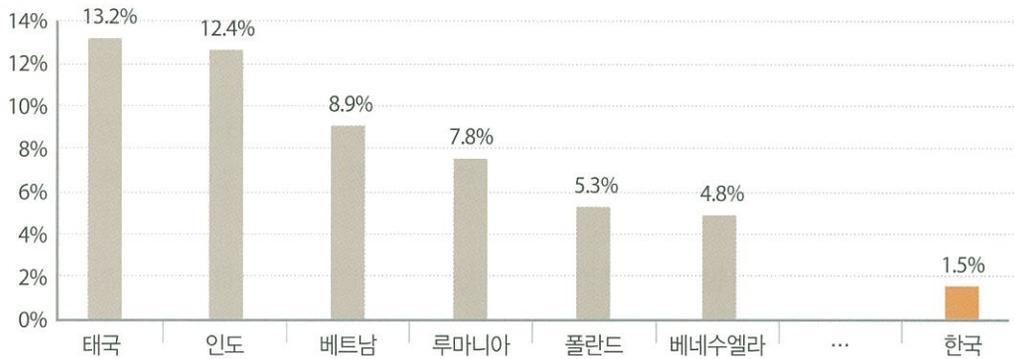
인도는 최근 들어 맥주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이다. 2012년 전 세계 맥주시장에서 인도의 맥주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수준으로 18위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소비량 증가율은 12.4%로 나타나 매년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태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맥주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국의 맥주소비량은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하였고 전 세계 맥주시장의 1%수준으로 2012년 맥주소비량은 189만 킬로리터로 나타나 전체 22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 한국의 맥주소비량은 207만 킬로리터로 시장규모는 전 세계 맥주시장의 1.1%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맥주소비량은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1.5%로 나타났다. 한국의 맥주소

비량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전 세계에서는 18위로 기록되었다.

주요국의 맥주소비량 연평균 증가율(2012년)



주요국의 맥주소비동향

2012 순위	2011 순위	국 가	2012			2011	
			소비량 (1,000kl)	시장점유율	전년대비비율	소비량 (1,000kl)	시장점유율
1	1	China	44,201	23.6%	-1.2%	44,738	24.1%
2	2	United States	24,186	12.9%	1.4%	23,861	12.9%
3	3	Brazil	12,800	6.8%	1.5%	12,608	6.8%
4	4	Russia	10,560	5.6%	-0.9%	10,660	5.7%
5	5	Germany	8,630	4.6%	-1.6%	8,770	4.7%
6	6	Mexico	6,890	3.7%	2.1%	6,750	3.6%
7	7	Japan	5,547	3.0%	-1.0%	5,603	3.0%
8	8	United Kingdom	4,319	2.3%	-3.7%	4,485	2.4%
9	9	Poland	3,790	2.0%	5.3%	3,600	1.9%
10	10	Spain	3,220	1.7%	-1.8%	3,280	1.8%
11	13	Vietnam	3,050	1.6%	8.9%	2,800	1.5%
12	11	South Africa	2,980	1.6%	1.4%	2,940	1.6%
13	12	Ukraine	2,760	1.5%	-2.1%	2,820	1.5%
14	14	Venezuela	2,400	1.3%	4.8%	2,290	1.2%
15	14	Canada	2,300	1.2%	0.4%	2,290	1.2%
16	16	Columbia	2,170	1.2%	2.8%	2,110	1.1%
17	22	India	2,080	1.1%	12.4%	1,850	1.0%
18	17	Republic of Korea	2,070	1.1%	1.5%	2,040	1.1%
19	19	Nigeria	2,000	1.1%	2.6%	1,950	1.1%
20	18	France	1,940	1.0%	-1.5%	1,970	1.1%
21	20	Czech Republic	1,905	1.0%	1.1%	1,885	1.0%
22	26	Thailand	1,890	1.0%	13.2%	1,670	0.9%
23	23	Argentina	1,8070	1.0%	2.7%	1,820	1.0%
24	21	Australia	1,830	1.0%	-2.7%	1,880	1.0%
25	25	Romania	1,820	1.0%	7.1%	1,700	0.9%

※자료 : Kirin Beer University Report 'Global Beer Production by Country in 2012'

3. 대륙별 맥주소비동향

1) 최근소비동향

2012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체 맥주소비량은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중국의 맥주소비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반면 태국, 인도, 베트남의 맥주소비량은 괄목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맥주의 소비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브라질의 맥주소비증가에서 기인한 결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최근까지 맥주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전년대비 소비량이 1.5%가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도 맥주의 소비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맥주소비 증가원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맥주소비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맥주소비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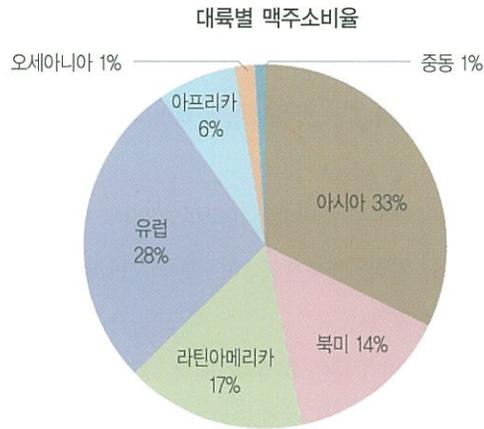
다른 대륙과 달리 2012년 유럽지역의 전체 맥주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량이 높은 상위 25개 국가에 포함되고 있는 유럽국가 중 폴란드는 전년 대비 맥주소비량이 5.3% 증가하여 유럽국가 중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맥주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한 독일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영국은 전년대비 맥주소비량 증가율이 3.7%로 나타나 전체 국가 중 8위로 기록되었다.

대륙별 맥주소비동향

지역	2012년 소비량 (1,000kl)	633-ml 병기준 (100만병)	2011년 대비 변화율	시장점유율
Asia Total	62,115	98,128	0.5%	33.2%
Europe	52,301	82,624	-0.5%	27.9%
Latin America	31,422	49,640	2.5%	16.8%
North America	26,486	41,843	1.3%	14.1%
Africa	11,362	17,950	5.9%	6.1%
Oceania	2,245	3,546	-2.6%	1.2%
Middle East	1,436	2,269	11.4%	0.8%
Total	187,368	296,000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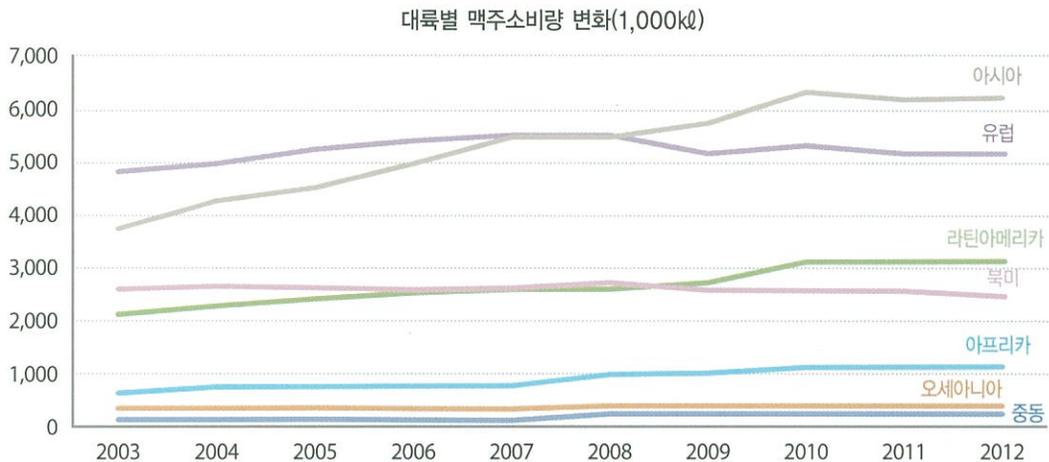
※자료 : Kirin Beer University Report 'Global Beer Production by Country in 2012'

대륙별 맥주소비량을 비율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맥주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유럽은 아시아에 이어 28%,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17%, 북미지역에서는 전체의 14%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 변화

아시아 지역은 2012년 맥주의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 0.5%가 상승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2년 유럽의 맥주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전년대비 2012년 맥주소비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북미는 전년대비 1.3%, 라틴아메리카는 2.5%, 아프리카는 5.9%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국가별 1인당 맥주소비량

1) 실소비량

체코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맥주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체코국민의 1인당 맥주소비량은 148.6리터로 나타났다. 체코의 맥주 총 소비량은 1,905만 킬로리터로 중국, 독일, 미국, 멕시코 등 맥주 소비 주요국에 비해 총소비량이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체코국민의 1인당 맥주소비는 가장 높다. 오스트리아는 107.8리터로 체코 다음으로 1인당 맥주소비

높은 국가로 기록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맥주 총 소비량은 912만 킬로리터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집약적으로 맥주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간 106.1리터를 소비하여 세계에서 1인당 맥주소비량이 3번째로 높은 국가로 총 소비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1인당 맥주소비량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간 2억 4,186만 킬로리터의 맥주를 소비하는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은 77.1리터로 전체 14위, 영국의 1인당 맥주소비량은 68.5리터로 22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은 50리터로 맥주 소비가 높은 상위 35개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1인당 맥주소비가 낮은 43.5리터이며, 2012년 기준 국가별 맥주소비량 보고서에 따르면 맥주소비량이 높은 상위 35개국 중에서 18개 국가는 전년보다 1인당 맥주 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1인당 맥주소비량

순위	국가	1인당 소비량 (ℓ)	국가 전체 소비량	순위	국가	1인당 소비량 (ℓ)	국가 전체 소비량
1	Czech Republic	148.6	1,905	19	Lithuania	72.5	260
2	Austria	107.8	912	20	Hungary	71.3	710
3	Germany	106.1	8,630	21	Slovakia	70.3	390
4	Estonia	102.4	130	22	United Kingdom	68.5	4,319
5	Poland	98.5	3,790	23	Spain	68.4	3,220
6	Ireland	98.3	460	24	Brazil	68.3	12,800
7	Croatia	85.9	390	25	Canada	66.9	2,300
8	Venezuela	85.5	2,400	26	Latvia	66.2	150
9	Finland	84.2	440	27	New Zealand	64.7	280
10	Romania	83.2	1,820	28	Angola	64.2	1,160
11	Australia	83.1	1,830	29	Denmark	62.1	340
12	Panama	82.3	290	30	Ukraine	61.6	2,760
13	Slovenia	80.1	160	31	South Africa	61.1	2,980
14	United States	77.1	24,186	32	Mexico	59.9	6,890
15	Bulgaria	76.8	540	33	Switzerland	58.3	460
16	Netherlands	75.7	1,270	34	Bosnia and Herzegovina	56.1	220
17	Russia	74.1	10,560				
18	Belgium	74	823	35	Sweden	52.7	480

2) 알코올 소비량

알코올 소비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나미비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6.6리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코는 나미비아에 이어 1인당 6.6리터를 소비하여 맥주 알코올 소비량이 2위를 기록하였다. 실소비량이 높은 독일은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높게 나타나 6.1리터로 맥주를 통한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주로 유럽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1인당 맥주 알코올 소비량이 높은 상위 30개 국가를 보면,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의 국가에서 소비량이 높았다. 총 소비량이 높은 미국, 러시아의 1인당 맥주소비량은 각각 4.4리터, 4.3리터로 1인당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한국의 1인당 맥주 알코올 소비량은 2.5리터로 나타났다. 😊

Rank	국가	Beer
1	Namibia	6.6
2	Czech Republic	6.3
3	Gabon	6.1
-	Germany	6.1
5	Poland	6.0
-	Lithuania	6.0
7	Venezuela	5.8
8	Ireland	5.5
9	Palau	5.4
10	Romania	5.2
-	Belgium	5.2
12	Panama	5.0
-	Spain	5.0
14	Serbia	4.9
15	Latvia	4.9
16	Austria	4.9
17	Slovenia	4.7
18	Finland	4.6
-	Belize	4.6
-	Australia	4.6
21	Netherlands	4.4
-	United States	4.4
23	Russia	4.3
-	Brazil	4.3
-	Andorra	4.3
26	Canada	4.2
-	Mexico	4.2
28	Luxembourg	4.1
-	Hungary	4.1
-	Iceland	4.1

※자료 :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